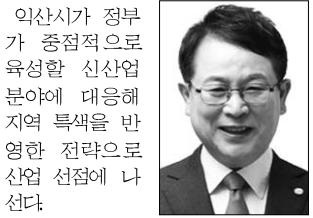


“신산업 선점 전략 마련할 것”

정현을 시장, 정부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육성 발표... 익산발전 기회



익산시가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할 신산업 분야에 대응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략으로 산업 선점에 나선다

정현을 시장은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육성방안을 토대로 대응 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익산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까지 관련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고 전했다

이어 “익산이 해당 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 전략을 자세히 분석하고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려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지시했다

현재 시는 합영읍 일원에 국비 200여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서 1단계로 벤처·창업기업 발굴과 육성, R&D 사업화 지원 등이 진행되며 2단계로 실질적 창업이 이뤄질 수 있는 창업보육지원시설과 시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혁신파크가 건립된다

왕궁면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포함한 12개 기업지원시설들이 입주해

식품기업을 위한 윈스톱 지원체계를 구축 현재 분양률 78.8%를 보이며 2단계 사업 확장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와 함께 정 시장은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시행에 대비해 익산만의 특색 있는 특례나 타 지자체와 연계한 권역별 특례를 발굴할 것을 뒤르키에·시리아 지역 지인으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익산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며 “공공시설 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진 대피 행동요령 등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하라”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 청년몰 '상상노리터'가 이달 28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상상노리터’ 개장 임박

익산 청년몰 28일 개장 앞두고 청년상인들 이색 개장식 준비

익산 청년몰 '상상노리터'가 이달 28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상상노리터는 중앙시장 내에 위치한 복합창년몰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20~30대 젊은 청년상인들이 재능과 끼를 발휘해 1층에는 다양한 먹거리, 2층에는 네일 마사지 등 서비스 및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그동안 임시 오픈기간을 통해 레시피, 메뉴, 가격, 서비스를 개선해나가는 이번 개장식 이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이번 개장식은 청년상인들이 행사 내용에 적극 참여하여 행사를 구성하였으며 청년상인들이 주인공이 되어 청년몰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청년상인 레드카펫 입장식을 진행했다

축하공연, 테이프컷팅, 청년몰 라운딩, 경품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올러 청년몰에서는 개장일인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다이로움으로 결제할 경우 다이로움 포인트를 10% 추가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익산 청년몰 내에서 다이로움으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10% 다이로움 서비스를 추가 지급하여 20% 혜택과 더불어 총 30% 혜택을 지원한다

개장식을 준비하는 청년상인은 “청년몰을 찾는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청년상인, 시민, 전통시장 상인들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상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해 드디어 개장식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견고·듣고·보고... 읍·면·동 현장소통행정 첫 걸음

군산시, 읍·면·동장 회의

군산시는 20일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위한 읍·면·동 역할과 현장 밀착행정 강화를 위해 2023년 신규 시책으로 견고·보고·듣는 읍·면·동 현장소통행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20일 민방위 상황실에서 개최된 27개 읍·면·동장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 읍·면·동장 현장 소통행정 추진, 지역 특색을 살린 1 읍·면·동 1 특화사업 추진, 불합리한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 등이 행정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불편 해결을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계묘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된 읍·면·동장 회의는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읍·면·동 신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했으며, 분청 관·과·소에서 읍·면·동에 공유가 필요한 시정 주요 당면 업무와 홍보 사항을 전달하고, 읍·면·동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신규 특화사업에 대한 보고와 토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견고·보고·듣는 읍면동 현장소통행정, △외국인 주민 명예동장 운영 협조, △열린 시정, 열린 군산' 발간 형태 및 배부 방법 개선, △군산시간여행축제 읍면동 순회 홍보, △2023년 군산시민국제 마라톤대회 홍보 등이 보고됐다

이어 읍·면·동 신규 특화사업으로 △육산면 LED 꽃 정원 조성, △대야면 와우산 일원 관광자원 활성화, △해신동 말랭이마을을 경관개선사업, △신풍

동 군산 야구의 거리 홍보를 위한 가로환경 조성, △소송동 기업·주민 상생 프로젝트 1°C 등이 보고됐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별로 연중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며 “관·과·소에서는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분청과 읍·면·동이 유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올부터 최일선에서 지역 행정을 총괄하는 읍·면·동장 회의를 매월 개최해 분청과 읍·면·동의 긴밀한 소통과 공유를 통해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수렴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미륵산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조성 ‘첫 걸음’

익산시가 미륵산 창공을 가르는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익산시 관내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조성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한국 패러레전드'로 불리는 피수용 고창읍성 패러글라이딩 대표, 익산시체육회 패러글라이딩 이재환 회장, 익산시 산패러동호회 신권식 회장 시 유관부서 4개 부서장이 참석, 패러글라

이딩 사업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현재 논의 중인 이·착륙장 후보지는 미륵산 부근으로, 미륵산은 전국적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하기에 최적화된 천혜의 환경으로 꼽히는 곳이다

패러글라이딩은 매니아층이 두터운 레저스포츠로, 익산시에 이·착륙장이 조성될 경우 전국 각지의 패러글라이딩 매니아들과 패러글라이딩을 버킷리스트로 꼽는 MZ세대들까지 유입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피수용 대표는 한국 패러글라이딩의 살아있는 전설로, 각종 세계대회와 전국대회를 휩쓴 익산 출신의 국가대표 파일럿이다

피 대표는 “익산에도 많은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있지만 타지에서 즐길 수 밖에 없어서 아쉬웠다”며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조성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현을 시장은 “누구나 한번쯤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싶은 적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단지 업체 모집

군산시는 20일 새만금 산업단지내 8만평 규모의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이하 수산산업단지)의 본격 추진을 위해 오는 4월말까지 민간 기업 입주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희망업체 모집은 토지분양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단계로 8만 평 중 7만 평에 달하는 민간 사업부지의 효율적 조성 및 단지 배치, 입주(부지)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희망업체(기관 단체 등)는 오는 4월 28일까지 시 수산식품정책과에(☎063)454-3034) 입주사업제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업종적정성과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 입주가능여부

사전검토 및 기본관리계획 수립해 2023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분양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산업단지에는 일일 약 3만톤 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해수 인매수 기반시설이 조성돼 시 속원 사업인 마른 김 가공공장이나 수산물고차가공 업체 등 해수를 활용한 고차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C10 식료품 제조업(102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과 해수(海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업 및 기관이다

다만 염료, 피혁, 도축업종, 유해물질 등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어긋나는 업종이나, 고차 가공업은 원료 위주의 수산물 가공공장은 입주 제한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공동주택 건설 관계자 간담회 개최

군산시는 20일 관내 민간 공동주택 건설 시공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군산에서 건설 중인 10개 단지 민간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 및 총괄감독원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강도 높은 안전관리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건설한 공동주택의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BJY 군산 등을 위해 논의했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 건설현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및 건설 인력 고용 증대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힘써 줄 것을 시공사에 요청하고, 감리자에게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확보를 위해 대응을 당부했다

김미정 부시장은 “건설한 시공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지곡동-은파간 도시계획도로 22일 개통

군산시는 지곡동 쌍용아파트와 은파순환도로를 잇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22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해당 도로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30억을 투자해 총연장 480m, 폭 30m의 6차선 도시계획도로다

시는 오는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동산중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은파공원 접근성 편의 등 주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쌍용아파트~은파순환도로 개통으로 동산중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뿐 아니라 현재 추진중인 4토지~리츠프라자 도로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산북동 4토지 및 나운동 도심권과 지곡동 일원의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변지역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